

## 금자두정(金子斗禎)

신흥아체제하 조선의 사명

### 6. 일본정신 발양에 있어서 반도의 전위적 사명

흥아 건설 및 세계 신평화 체제 수립의 원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되는 일본정신은 어떠한 특질을 갖고있으며 또 창조적 일본의 성격은 무엇일까? 나는 다행히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올 봄에 니주바시(二重橋) 앞에 무릎을 꿇고 건국발양의 성지를 비롯해 전국의 조요 신궁과 신사를순배하고 각지의 유명한 사원 수양단에서 수양을 하였다. 그리고 약진 일본의 대표적인 각 도시의 문물 일체를 시찰했는데, 내선일체는 참궁수행(參宮修行)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 창조적 일본의 근원은 황실이라는 점을 결론으로 얻을 수 있었다. 신토(神道)와 황도와 일본정신은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은 신을 숭배하는 동시에 황실을 신앙적으로 존숭(尊崇)한다.

다음으로 내 머리에 떠오른 일본정신의 특질을 간단히 서술하자.

첫째로, 일본정신은 우주생성·발전의 대원리이다. 일본신화·신칙(神勅) 및 3000년 동안의 황도의

선양 등을 비롯해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팔굉일우’, 시간적으로는 ‘천양무궁’, 창조적으로는 ‘수리고성(修理固成)’, 도의적으로는 ‘대화대애(大和大愛)’·‘충효일본(忠孝一本)’ 등의 건국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태양이 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우주를 비추는 것처럼, 현인신(現人神) 이신 천황이 우주생성·발전의 종가(宗家)의 가장으로서 우주의 창생(蒼生)을 적자로 삼아 애무하신다. 우주생성·발전은 우주창조를 의미하고, 우주 전체로 방사하는 일본정신은 늘 일체관념(一體觀念)이다. 신인일체(神人一體)·군신일체(君臣一體)·문무일체(文武一體)·내선일체(內鮮一體)·노자일체(勞資一體)·자타일체(自他一體) 등이다. 이는 서양의 분석학적 태도로는 이해할 수 없다. 흥아 건설도 팔굉일우도 그 어떠한 역사적 창조도 우주를 향한 원심적 작용과 황실을 향한 구심적 일체에 의해 완성된다.

둘째로, 일본정신은 오래되었으면서도 새롭다. 일본정신의 연원은 멀리 다카야마하라(高天原)<sup>13</sup> 정신, 가시하라(檜原)<sup>14</sup> 정신에서 나왔고, 그 속에서 육성된 예술문화는 사원·불각·명성(名城)·고적 등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옛날 그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풍부한 역사적 내용은 일본적 형태(전통)로서 발전적 특성을 잃지 않았다. 어떠한 외래문화라도 이를 일본정신으로 소화하고 발전시킨다.

셋째로, 일본정신은 웅대하고 치밀하다. 고성(古城)·불각(佛閣) 및 근대적 건설 규모의 웅대함, 팔굉일우, 천양무궁의 건국이상의 무한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날 황도의 세계적 광피(光被)와 세계 신평화 체제 수립까지 나아가게 한다. 동시에 일본 예술의 치밀성은 그 우주적인 건설을 만대에 걸쳐 흔들림 없는 정초 위에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창조의 견실성을 거론하기에 충분하다.

넷째로, 일본정신은 유연하면서 견고하다. 경신숭조(敬神崇祖)의 관념에 살고 우미(優美)한 자연 속에 생활하는 일본인은 신불(神佛)과 더불어 이러한 자연미를 그대로 가정·정원·생활 위에 옮겨 놓았다. 따라서 실로 인간성과 우미성이 뛰어나다. 곳곳에 꽃이 있어서 꽃과 더불어 웃는다. 곳곳에 신사가 있어서 신과 더불어 살아간다. 게다가 부드러움으로 강인함을 제압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질풍노도의 일본이다. 일단 완급한 경우에는 노도와 함께 국난을 씻어내지만, 이 경우

의 일본 국민의 애국심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분쇄할 수 없다. 한 번 웃으면 아이가 따르고, 한 번 화를

내면 천지가 흔들리는 성정을 갖고 있다는 데 일본적 특성이 있다.

이처럼 원심적이지자 구심적이고, 대이자 소이고, 옛 것이자 새롭고, 부드러우면서 견고한 바의 모순된 양 극단이 동시에 성립되어 있다. 이원적 작용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에 일본정신의 세계성과 포용성이 있다. 대립하는 양 극단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통합·조화시키는 점에 일본정신의 특질이 있다.

국가적 대혁신은 항상 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이카개신(大化改新),<sup>15)</sup> 켄무중흥(建武中興),<sup>16)</sup>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나아가 흥아유신(興亞維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이고, 황실의 성덕을 받드는 만민들 간의 대립은 황도 아래에서 해소된다.

이로써 우리는 창조적 일본의 근원은 국체명징을 통해 규명하였고, 일본적 창조의 추진력인 일본적

성격은 일본적 생활을 통한 일본정신의 체현에서 구하고, 일본적 재출발은 황도 일본의 건국정신의 재확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동시에 팔굉일우의 건국이상 구현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적 대창조를 향한 진군이다.

여기에 조선반도 2,000만 황민이 일본정신 발양의 전위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아시아 도의협동체를 완성하려고 한다면, 일본정신 연구기관의 설치, 국민적 참공수행, 황도도장의 증설, 일본적 생활의 확립, 사범교육의 철저,

중견지도층의 황민적 연성 강화 등으로 일본정신의 체현에 노력하고, 이를 통해 황공하게도 천황폐하에 대한 적성(赤誠)으로 충의를 다하는 데까지 도달한다면 당면 황민적 연성기의 임무는 종료되고, 따라서 조선반도의 일본정신 발양의 전위기지적 역할을 완료할 수 있다.

이리하여 신홍아체제하의 조선의 사명은 국내적으로는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어 거국적 신체제를

완성하고, 홍아 건설에서는 전진기지적 사명을 통해 정치적·경제적·도의적·문화적으로 아시아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아시아 낙원 건설을 통한 팔굉일우의 구현에 매진하고, 이를 통해 고차원적인 다카아마하라의 건설에 임하는 일이다.

조선반도 2,000 만 황민이여! 보무도 당당히 영예로운 고차원적 다카아마하라 건설을 향한 신성한 진군을 계속하라.

( 필자는 일본가정교육회 고문)

<출전 : 金子斗禎, 「新興亞體制下に於ける朝鮮の使命(齊藤子爵紀念會募集入選論文:佳作)」,

『朝鮮』第 307 號, 1940 年 12 월, 66~79 쪽>